

# '한 올 한 올 수놓듯 정성 드린 글'

## 포천문인협회, 포천문학 제9집 출판기념회 가져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재욱)는 11월16일 오후4시 포천 반월아트홀 전시실 1층에서 포천문학 제9집 출판기념회 및 시화집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윤국 포천시장, 이희용 포천예총회장, 이민구 포천문화원장 등 내빈과 포천문인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간된 포천문학 9집은 포천의 역사적 배경과 120여편의 시, 수필, 소설 등 포천문인협회의 회원들의 작품을 수록하여 포천지역의 문화적 동향을 서로 공유하며 포천

시의 정서를 알리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재욱 포천문인협회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회로에 올라 모든 생각과 그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사연들을 글로써 표현하기 위해 한 올 한 올 수놓듯 정성을 드린 글"이라며 "포천문학 9집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박윤국 시장과 이강림 의회 의장께 감사드리며 포천문학 가족들 문운이 있기를 빈다"고 밝혔다.

이희용 포천예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발간되는 포천문학지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은 출판기념회와 시화전을 통해 전국에 발표하고 그 글들을 포천문학이라는 글 향아리 속에 담아서 앞으로 구절초 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포천문인의 글 향기를 전하여 격조 높고 품위 있는 포천문인협회가 되고 건필하는 문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문인협회 회원 개인출품전 등 40점의 시화전 작품을 전시하고 회원들의 시낭송회도 함께 실시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신/간/안/내

#### 青城漢詩集 정해년篇 한시 저번확대 위해 발간



(사)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회장 李曉鐘)는 최근 '青城漢詩集'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青城漢詩集은 유봉현, 리효종, 양재창, 양기성, 이창수, 최종규, 정기용, 박동규 회원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青城漢詩集 서문에서 리효종 회장은 "아시아의 힘은 유교라고 하는데 한시인은 유교문화의 기본인 한자문과 창달자"라며 "국가에서는 우리 민족이 유교 문화권에서 낙후되지 않도록 한자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 동호인들은 한시를 저번확대 하는데 노력하기 위해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는 격년으로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발간 후 이번 시집이 두 번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는 11월16일 오후4시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 1층에서 포천문학 제9집 출판기념회 및 시화집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2세의 뮤지컬 플레이(Musical Play)

뮤지컬 플레이(Musical Play)와 북 뮤지컬(Book Musica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뮤지컬 잡지나 책 혹은 전문서적을 보면 종종 두 가지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의 뮤지컬 공연 대본을 보면 대체적으로 겹표지에 뮤지컬 플레이나 뮤지컬 코미디가 명시되어 있는데 북 뮤지컬이라는 용어는 현재 전문적인 이론서적 이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 둘은 명확한 규정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혼용되거나 종종 다른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뮤지컬 플레이(Musical Play)는 뮤지컬 드라마(Musical Drama)라고도 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뮤지컬 플레이(Musical Play)가 플롯과 캐릭터를 중요시 하며 많은 분량의 대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 뮤지컬과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플롯과 캐릭터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1927년에서 시작된 북 뮤지컬 <쇼 보트(Show Boat)>의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대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를 바 없다. 그렇지만 등장인물들이 노래와 대사를 통해 보다 복잡하게 캐릭터를 발전시켜가며 초기

북 뮤지컬 보다 더 많은 양의 대사가 사용되고 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즐거움에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북 뮤지컬들과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뮤지컬 플레이(Musical Play)라는 용어는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1895~1960)로부터 출발한다. 이들이 협력해서 만든 첫 작품이 <오클라호마(Oklahoma!, 1943)>인데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며 1945년에 발표된 <회전목마(Carousel)>와 함께 뮤지컬 플레이(Musical Play)의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다. 1943년에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며 함께 작업을 시작한 두 사람은 이후에도 탄탄한 줄거리와 함께 많은 대사가 포함된 대본에다가 가사와 극중 맨스도 극의 일부로 결합시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들의 뮤지컬 플레이들은 지방색을 띠면서도 역사적인 세트와 다소 복잡한 캐릭터를, 그리고 오페라적인 이야기와 발레적인 맨스 시퀀스 등을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매우 다채롭다. 무대의상들과 기술적인 효과들

그리고 맨스 안무들은 눈요기 거리를 추구하는 사치스러운 뮤지컬보다는 스토리와 환경을 중시하는 감성적인 구조를 특별히 반영하고 있다. 많은 북 뮤지컬들은 항상 구식의 스펙타클에다가 어김없이 진지한 주제를 선택해서 이야기체의 요소를 혼합하고 있는데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2세의 뮤지컬 플레이들은 이야기체의 요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뮤지컬 플레이들이 <오클라호마(Oklahoma!)>와 <회전목마(Carousel)>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뮤지컬 플레이가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2세가 의미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게 발전해 나간 형식도 있다. 다소 오페라적인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사의 사용을 극도로 최소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노래나 혹은 춤이 더 주된 내용 전달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뮤지컬들이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 <캐츠(Cats)>, <레미제라블(Les Miserable)> 등이 그것이다.

이들 두 사람은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뮤지컬을 통

틀어서 가장 성공한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데 뮤지컬 플레이라는 형식을 개척하며 뮤지컬의 다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오클라호마(Oklahoma!)>, <회전목마(Carousel)> 이외에도 <스테이트 페어(State Fair, 1945)>, <알레그로(Allegro, 1947)>, <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등이 1940년대에 발표되었는데 비록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이 1950년대에 발표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1940년대가 뮤지컬의 '골든 에이지(Golden Age)'라는 찬사를 받게 된다.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2세가 명작의 한가운데 놓이며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이 시기가 바로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전세계 뮤지컬계의 황금시대라고 하는데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영국뮤지컬 시대에 버금가는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후크선장과 띠보'는 우선 꿈과 우정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았다. 별나라에서 온 별뿔별 띠보와 목동 에밀리오의 순수한 우정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현 시대 속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소중한 가치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한다. 누구의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의 체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연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어린이공연의 특성을 잘 살려 친숙함이 묻어나는 동화세계와 같은 무대,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흥겹고 신나는 노래들로 재미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83

## 임진왜란과 민족의 쫓기(1)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국내 각 처에서는 민족적 의분이 넘쳐흘러, 산골 속에서 글을 읽고 있던 선비들과 심산에서 도를 닦고 있던 승려들까지도 자진 쫓기하여 의용군을 조직하고, 왜병들과 싸웠다.

즉 조헌(趙憲), 곽재우(郭再祐), 고경명(高敬命), 김천일(金千鎰), 정문부(鄭文輔) 등은 유생들과 휴정(休靜) 및 그의 제자 유정(惟政)과 같은 승려들이다. 도처에서 왜병과 싸워, 혹은 육탄으로 장렬한 죽음을 하고, 혹은 적을 쳐부수어 공을 세운 이도 많았다.

특히 조헌은 승장(僧將) 영규(靈圭) 등 7백 의사(義士)와 함께 정라도 금산에서 왜적을 맞아, 최후의 한 사람까지 육탄으로 돌격하다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은 당시 고승(高僧)으로서 묘향산에서도 중이었는데, 임금 선조의 소명에 응하여 격문을 8도 승려들에게 발하였고, 그의 제자 유정과 함께 1천 7백 명의 승병을 이끌고 명군과 연합하여 평양 탈환에 대공을 세웠다. 또 그의 제자 처영도 의병을 다수 모집하여 관의군(官義軍)의 총대장이라는 전투병단의 막하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이 중에 사명당(四溟堂) 유정은 그의 스승 휴정의 명을 받들어 승병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는 도술이 신통한 중이었다.

그가 병신년(丙申年)에 사신으로 일본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다.

일본의 관백 도요토타미 히데요시는 그의 위력을 꺾어 볼 양으로, 짐검을 거절하고 군졸들에게 명하여 어느 깊은 산 속에 감금시켜 놓고 먹을 것을 주지 말라 하였다.

흰 눈이 산야에 덮힌 겨울철에 그렇게 10여일이 지났으니 히데요시는 응당 그가 굶어 죽었으려

니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가보라 하였다.

그러나 사명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처음 앉았던 돌 위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얼굴에 화기가 가득하고 눈빛이 별같이 열통하여 조금도 주린 빛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앉은 바위 둘레 수십보 안에는 눈이 한점도 내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회보를 듣고 히데요시도 그가 예사 중이 아님을 알고 인마를 보내어 데려오게 하였다. 그리고 사명당이 돌아오는 길가에 10여 리에 뻗힌 긴 병풍 하나를 쳐놓게 하였다.

그 병풍은 원래 중국 진시황 때 도인 서시(徐市)가 일본에 조공하고 바친 책을 베껴 병풍으로 꾸민 것이다. 서시는 동남동녀(童男童女) 3백 명을 거느리고, 삼신산에 들어가 불로초를 캐어 오겠노라 하고는 진시황의 허락을 얻어 배를 타고 지금의 서시도란 섬에 상륙하여 그 곳을 개척하고 살았는데, 이 서시는 일본에 가까운 섬이었으므로, 일본에 조공하고 책 한 권을 바쳤다.

후에 진시황이 천하에 있는 모든 서적을 다 불사르게 한 까닭에, 그 책은 한 권밖에 남지 않은 귀중한 책으로, 후에 일본 조정에서는 그 책을 큰 보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다가 병풍으로 만든 것이었다.

사명당은 말을 타고 가면서

그 병풍을 보았다. 자랑하기 위하여 내놓은 것인 줄을 그는 짐작하였다.

히데요시의 집에 이르러, 히데요시는 반가이 맞으면서, 실례하였노라며 사과의 말을 하였다. 이에 사명당은 "명성과 도량을 지닌 장군이 타국 사신을 마치 옛날 중국 한나라 때 흉노가 소무(蘇武)에게 하던 법을 쓰려하니, 실로 가석한 일이다."

하였다. 히데요시는 더욱 무안하여 재삼 사과하면서 묻기를, "어째서 선생은 굶고 배고프심을 모르십니까?"하고 물었다. 사명당은 "대답하거늘,

"굶고 덥고 배고프고 배부름은 속인들이나 염려할 일이 외다." 하고 나서 히데요시의 태도가 아주 누그러졌음을 본 그는, 굳이 강권하여 두 나라 사이의 교화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는 조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히데요시는, "선생은 아까 길 옆에 세워 놓은 병풍을 보셨습니까?" 물었다.

사명당은, "예, 보았소. 그런데 그 병풍에 쓰인 글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척동자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소이다." 하였다.

히데요시는 웃으면서, "내 들으니 불가의 제자들은 거짓말을 모른다던데 선생은 어찌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고, 그 책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책이 귀국에 있을 리 만무하다고 하였다. 사명당은,

"그렇게 믿기 어려우시면, 내 그 글을 읽 터이니 들어 보시오." 하고, 10여 리에 뻗힌 병풍 속의 글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내리 외는 것이었다. 히데요시가 대경 감탄하였습은 물론,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 사람들은 사명당의 높은 덕과 학행을 흠모하여 사당을 짓고 봉사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어린이 뮤지컬 '후크선장과 띠보'

### 포천반월아트홀 11월30일 세 차례 공연

어린이 뮤지컬 '후크선장과 띠보'가 오는 11월30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60분 작품으로 만2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오전11시, 오후2시, 오후3시30분 등 3회 공연하며 입장권은 1만원이다.

이번 작품을 제작한 악어컴퍼니 관계자는 어린이뮤지컬 '후크선장과 띠보'는 캐릭터들이 범람하는 어린이공연시장에서 어린이뮤지컬이 가져야 할 교육적인 측면과 함께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 줄 작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후크선장과 띠보'는 우선 꿈과 우정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았다. 별나라에서 온 별뿔별 띠보와 목동 에밀리오의 순수한 우정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현 시대 속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소중한 가치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한다. 누구의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의 체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연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어린이 뮤지컬 '후크선장과 띠보'가 오는 30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다. 그리고 어린이공연의 특성을 잘 살려 친숙함이 묻어나는 동화세계와 같은 무대,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흥겹고 신나는 노래들로 재미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내촌감리교회 제11회 자선음악회

11월29일 오후 6시

내촌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창성)는 오는 11월29일 오후6시 내촌감리교회에서 제11회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는 지역의 유지는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10회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어 왔다.

제11회 자선음악회는 아리랑 국악단, 임병훈, 구자경, 유은혜(소프라노) 권용찬(테너), 팔아포단이 출연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18)

## 왕방거사(王訪居士)와 문례현(問禮峴)

「무럭고개, 「무례골, 「무릉고개,란 여러 이름을 가진 「문례현(問禮峴)은 포천 신읍동(옛 이름:장거리, 새장터)에서 신복면 삼곡리(깊이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필자도 깊이울에서 태어나 6세까지 살았으며 장거리로 이사하고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나를 여섯 살까지 업어 걸려온 애보기 옥희가 물어 고개까지 업고 와 고갯마루에 서서 내가 나귀 등에 옮겨 타고 장거리 요골 모퉁이로 사라질 무렵까지 나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앞치마로 닦던 모

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고개이기도 하다.(66년 전)

신복면 고일리에는 이현(怡軒)성여완(成女完):고려, 충선왕 1년 1309년~조선 태조 6년 1397년)과 그의 아들 독곡(獨谷) 성석린(成石隣:고려 충숙왕 7년 1338년~세종 5년 1423년)의 묘가 있다.

이현 성여완과 그의 아들 독곡 성석린에 대하여는 여러 필진을 통하거나 TV사극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며 두 인물을 모르고서는 여말 국초(麗末 國初)의 역사를 논할 수 없을 만치 유명한 인물이다. 성여완대감은

말년을 계류리에서 살았으며 그의 묘도 고일리에 있다. 그래서 성여완대감은 왕방산을 바라보며 말년을 살았으며 「왕방거사,로서 누구나 함부로 찾아 오기 힘든 곳에서 은거(隱居)하였던 것이다. 은거처인 계류리를 찾아 고

려 충신 성여완에게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사로 하여금 출사(出仕:벼슬길에 나아감)할 것을 권하러 갔을 때 예(禮)를 갖추어 넘던 고개라고 하여 문례현(問禮峴)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아들 독곡대감이 고

개를 넘을 때 영험한 왕방산을 바라보며 웃음을 머미고 예를 갖추며 넘어서 「문례현이란 설도 있다.

어떤 사람은 「물어 물어, 「꼬불 고불, 넘어서 「물어고개,라는 사람도 있다. 또, 기운 없는 아기 신랑이 색시 집이 매우 지체가 높아 두려워 무릎으로 기어 넘어서 깊이를 차가택을 찾아 갔다는 전설이 있다.

8.15해방이 되어 왜놈들이 물러갈 때 까지 왕방산 「물어고개,는 호랑이 산신령님이 살아서 밤이면 「물어고개 성황당을 지키고 앉아 있다고 하여 무서워 떨며 넘지 못하던 고개이기도 하다. 호랑이에게 밥을 받았다는 「부전어미,도 깊이울에 살았으며 요즘에도 깊이울마을 당제(堂祭, 음 3월3일과 9월9일)를 지내는 「물어고개,이기도 하다. (왕방산 산신제)

필자연락처 02-932-2434

필자연락처 02-932-2434

### 초대 漢詩

### 耆老侍宴感懷(기로서연감회)



李曉鐘(이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倫理遊施敬老先(윤리준시경로선) 侍筵實踐又今年(시연실천우금년)

윤리 선양은 경로가 우선인데 금년에도 또 시연을 베풀네

秉彝懿德規鄉守(병이의덕향규수) 行善綱常聖道宣(행선강상성도선)

병이 의덕은 아름다운 향약을 지키는 것이고 강상을 바로하여 행선하는 것은 성도를 베푸는 것이로다.

盛饌滿盤欣色溢(성찬만반흔색일) 佳肴醞酌笑成連(가요영작소성연)

성찬이 만반하니 기쁘듯이 넘치고 좋은 안주와 술이 잔에 가득하니 웃음소리가 이어지네

世間教化成長俗(세간교화성장속) 稱頌褒詞永有傳(칭송포사영유전)

세상을 교화하여 양속을 이루어 칭송하는 소리가 기리 전하리.